

부부의 인적자본과 가계소비지출구조

Human Capital and Consumption Structure in Husband-Wife Households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양 세 정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사 여윤경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e-Jeong Yang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Instructor : Yoonkyung Yuh

◀ 목 차 ▶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husband-wife's human capital on household consumption structure. This study used the 1996 Expenditure Survey of Urban Families from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the samples, 62.36 percent of the households had the same educational attainment for husband and wife. The households with more educated couples tended to have more household income and more household expenditur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educational level of husband-wife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on most household expenditure categories after controlling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f the educational level of husband-wife were found on the expenditures for food at home, food away from home, housing, clothing,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I. 서론

가계는 한정된 구매력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소비 지출을 추구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행태는 소비지출의 근간이 되는 가계소득의 규모뿐만 아니라 가계의 특성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지출간의 관계규명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 가계소비지출이 양적, 구조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임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가계구성원들의 선호(prefere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원의 선호에 대한 대응변수로서는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실제 그 가계의 소비지출 특성과 형태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설명력이 있음이 이미 많은 연구들(김기옥, 1988; Hafstrom & Dunsing, 1972; Abdel-Ghany & Foster, 1982 등)에서 밝혀져 왔다. 이러한 특성들이 빈번히 사용되어 온 이유는 이러한 특성들은 객관적으로 범주화하거나 수치화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가계를 소비지출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서로 비교하기가 유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가계소득의 향상과 특히 가계의 소비지출 선호체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적자본의 대표적인 변수인 교육수준변수를 좀 더 깊이있게 다루고자 한다.

가계소비지출과 교육수준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Michael(1973, 1975)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교육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며 이를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가계의 구매력 향상을 가져오고 나아가 가계소비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한다. 또한 교육은 소비행위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는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보다 더 낮은 소비지출로도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실증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높은 교육수준은 오히려 다양한 소비

욕구를 창출하기 때문에 질적, 양적으로 새로운 소비행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Abel-Ghany & Foster, 1982).

교육수준과 가계소비지출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국내연구는 김기옥의 연구(1988)가 유일하며, 이 밖에 다수의 가계소비지출관련 연구들이 가계소비지출합수를 도출하기 위한 설명변수의 하나로서 교육수준을 사용해 왔다. 몇몇 연구들은 주부의 교육수준을 가계의 대표적인 교육수준변수로 사용해 왔는데 이는 자료조사시 면접 대상 혹은 연구대상이 주로 주부였던 편의성이 그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김기옥 & 이승신, 1990; 문숙재 & 정순희, 1996 등). 일부연구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가계의 대표적인 교육수준 변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김영숙, 1996; Hafstrom & Dunsing, 1972 등). 반면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가족원 전체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남편의 교육수준과 부인의 교육수준, 또는 여타 가족원의 교육수준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수준에 따른 가계소비행태나 그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남편의 교육수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부인의 교육수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한 검토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의 대표적인 인적자본변수인 교육수준이 가계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특히 부부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가계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다. 이를 위해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을 가능한 모든 조합형태로서 설명변수화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부부 교육수준의 혼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학 관련분야에서 교육수준과 가계경제구조에 관한 논문의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부 또는 남편의 교육수준을 가계의

교육수준변수로 사용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혹은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가계소비지출 관련연구의 연구설계와 방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다양한 교육수준의 조합에 따라 각 비목별 지출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각 지출비목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의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각 가계가 세부비목별로 소비지출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소비상품을 생산하는 관련업체들에게는 그들의 마케팅전략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여 실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연구의 배경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인간이 화폐소득과 비화폐소득을 창출해내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지식, 지능,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의 총체적인 축적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금 더 좁은 범위 내에서의 인적자본, 즉 인적자본과 소득과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그들은 개인의 인적자본이 시장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한계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 인간이 가진 인적자본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므로 가장 분명한 형태의 인적자본인 '공식적 교육(formal education)'을 대리변수(proxy)로 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다. 즉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을 받은 총 연수나 혹은 획득한 학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람이 지닌 인적자본의 양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 즉 교육수준은 시장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비시장경제활동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소비자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증명되어 왔다(Michael, 1973; 1975).

우선, 교육수준은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성취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의 증가는 합리적인 사고와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 때문에 부부간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소비지출문제와 직결된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구매의사결정시 어느 부분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상호인식에 일치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강기연, 1989; 길미령, 1990).

또한 교육은 가계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Gary Becker(1975)는 그의 유명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서 '교육은 인간에 대한 투자이며 높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옥의 연구(1988)에서는 교육수준의 증가는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고정된 화폐소득하에서 교육의 증가는 마치 화폐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소비지출패턴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즉 교육은 가계생산활동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소비지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며, 그 변화의 양상은 소득의 증가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지출패턴의 변화와 같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의 증가로 인한 실질소득의 향상은 재화에 대한 소비보다 용역에 대한 소비를 더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가계구성원의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서 가구주의 교육수준 또는 배우자의 교육수준 변수 중 하나를 주로 사용해왔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가계구성원의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서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교육수준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몇몇 연구에서는 가계소비

지출에 있어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Hafstrom과 Dunsing(1972)은 남편의 교육수준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부인의 교육수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즉 가계소비지출의 특정항목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의 혼합효과뿐만 아니라 개별효과를 가계소비지출연구에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bdel-Ghany와 Foster(1982)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인의 교육수준은 식료품비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서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은 비시장경제활동 중 소비생활에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나 배우자의 교육수준 중 한가지를 대표적 인적자본변수로 사용한 것은 이것이 다른 가족원의 교육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부부의 인적자본 즉 교육의 영향력을 구조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앞서 언급한 암묵적 가정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관련 실증연구의 고찰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지만, 가계소비지출과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다루면서 남편 또는 부인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함께 다룬 연구들은 다수이다. 교육수준변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연구의 대부분이 남편 또는 가구주 또는 부인의 교육수준을 다루고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남편의 교육수준 - Hafstrom과 Dunsing(1972)은

일찍이 가계소비지출패턴형성에 있어서 교육수준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그들은 1960-61년 CES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19개 지출비목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때 19개의 지출비목을 '현재지향적' 지출비목과 '미래지향적' 지출비목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래중심적 지출비목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중심적 지출비목으로는 주거비, 가사용품 및 가구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육비, 선물비 및 기부금 등이 포함되었다.

- 가구주의 교육수준 - 국내연구로는 김기욱(1988)이 Michael(1973; 1975)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비지출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실증분석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는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12개 소비지출비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 가구주 연령, 가족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가구주의 교육연수는 외식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이마용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제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영애와 양세정(1997)의 연구는 1994년 도시가계 연보자료를 사용하여 9개 소비지출비목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구주가 60세 이하인 비노인가계의 연구결과를 참조해 보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피복·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영숙(1996)의 사교육비지출을 다룬 연구는 1995년 대구지역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은 증가함을 보였다.

이윤금과 양세정(1999)의 연구는 1996년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식생활비의 영향요인을 살펴 보았는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료품비 및 외식비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인(주부)의 교육수준 - Abdel-Ghany와 Foster (1982)는 가계소비지출의 세부비목에 대해 가계소득과 부인의 교육연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지출세부비목별로 소비지출규모에 대한 소득 및 교육수준탄력성을 산출, 비교하였다. 1972-73년 CES 자료를 사용하여 15개 지출비목을 분석한 결과 교육, 도서, 교양오락, 휴가비 등의 지출은 교육탄력성이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주거비, 가사서비스, 피복비 등은 탄력성이 1에는 못 미치나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대, 교통, 미용, 보건의료, 담배에 대한 지출규모는 교육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비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는 교육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편모가족을 분석한 문숙재와 정순희(1995)의 연구는 서울지역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10개의 지출비목에 대한 가계소득 및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의 교양오락비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여타 지출비목의 규모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1990년 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정영숙(1992)의 연구는 가계소비지출을 4개의 패턴으로 구분하였다. 교육비지출이 많은 교육비 지배적 패턴에 들어갈 확률을 분석한 결과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지배적 패턴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의 실증연구들에서는 교육수준과 가계소비지출간의 뚜렷한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남편 또는 가구주 또는 부인의 교육수준 등이 혼용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일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계소비지출구조를 살

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교육수준별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평균값의 산출과 분산분석이 사용되었다. 둘째, 부부의 교육수준별 가계소비지출 규모를 분석한다. 각 교육수준 집단별로 지출비목별 월평균지출액을 산출하였으며, 가계특성에 따른 지출행태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이 사용되었다. 셋째, 부부의 교육수준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한다. 교육수준 이외의 다른 가계 특성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부부의 교육수준이 가계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가구특성변수로는 가계소비지출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Horton & Hafstrom, 1985; Abdel-Ghany & Schwenk, 1993; Jang, 1995; 문숙재 & 정순희, 1995; 성영애 & 양세정, 1997)를 참조하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는데, 가구주-배우자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주택소유상황, 거주지역, 주택자금상환 여부, 맞벌이 여부, 남성가주주 여부, 미취학자녀 존재여부, 중고생자녀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회귀분석모델에서 가계소득과 가구원수는 그 비선형적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제곱의 형태를 함께 사용하였다. 두 변수의 경우 선행연구(이윤금 & 양세정, 1999; 정용선, 1993; Abdel-Ghany & Schrimper, 1978)에서도 검증된 바 있듯이 가계소비지출과 비선형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가구주-배우자 교육수준, 가구주연령, 가구주직업, 주택소유상황 및 거주지역 등은 범주형 변수의 형태로 사용하였다.

가구주-배우자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최저교육수준 집단인 부부 모두 중졸이하인 경우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가구주연령은 20대, 가구주직업은 노무직가구, 주택소유상황은 월세가구, 거주지역은 중소도시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된 회귀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Expi = f(\text{가구주와 배우자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직업, 자가여부, 거주지역, 주택자금상환여부, 맞벌이여부, 남성}$$

가구주 여부, 미취학자녀존재 여부, 중고생 자녀존재 여부)

2. 자료

본 연구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다. 통계청에서 5년을 단위로 실시하는 본 자료는 전국 비농가를 대상으로 수입과 지출, 연간소득, 저축부채, 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의 생활수준 및 실태에 관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자료이다. 분석대상가구는 주요지표에 따라 층화추출한 30,000 가구를 목표로 하였으며, 가계수지 부분은 10월과 11월 동안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밖의 자료는 면접타계식으로 조사하였다(통계청, 1997). 최종적으로 24,290 가구가 조사 완료되었는데, 이 중 본 연구는 소득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근로자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부부의 교육수준을 다루는 본 연구의 특성상 부부가 모두 존재하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조사시점에서 직장 및 학업 등의 이유로 동거하지 않고 있는 부부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최종분석대상은 10,723가구였다.

3. 변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부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등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졸업 및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분석대상의 수가 극소수여서 중졸이하의 집단에 포함시켰다. 부부의 교육수준은 각기 네 단계로 이를 조합한 경우의 수는 총 16개 집단이었다.

본 연구에서 가계소비지출의 세부지출비목별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원자료에서는 소비지출에 관한 대분류로 10개 지출비목을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식비 중 외식비와 식료품비간의 특성차이를 고려하여 식비를 두 개의 지출비목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1개 지출비목을 다루

었다. 11개의 세부지출비목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식료품비 : 곡류, 육류, 유란, 채소, 과일, 음료, 주류, 빵 및 과자류 등
- 외식비 : 식사대, 음주대, 학교급식, 기타외식
- 주거비 : 월세, 주택설비수리, 아파트관리비, 화재보험료 등 기타주거
- 광열·수도비 : 수도료, 전기료, 연료
- 가구집기·가사용품 : 가구,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가사서비스
- 피복·신발 : 피복, 신발 및 관련서비스
- 보건의료 :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진료비 등 보건의료서비스
- 교육 : 납입금, 교과서, 보충교육, 기타교육비, 문방구
- 교양오락 : 신문도서, 교양오락용품기구, 오락 시설이용료등 교양오락서비스
- 교통통신 : 개인교통, 공공교통, 통신
- 기타 : 담배, 이미지용, 경조사, 회비, 장선구, 종교관계비 등

4. 부부의 교육수준 분포

〈표 1〉은 분석대상가구 부부의 교육수준별 분포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간의 상관관계는 0.68054로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73.11%에 이르고 대졸이상인 경우도 29.64%였다. 부인의 교육수준은 이보다 다소 낮아서 고졸이상이 60.28%, 대졸이상은 14.21%였다. 전체가구 중 고졸-고졸 가구가 가장 많은 28.21%를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 중졸-중졸가구는 23.86%, 대졸-대졸가구 10.03% 등 부부가 동일한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이 62.35%였다. 남편이 대졸이고 부인이 고졸인 가구 또한 많아서 전체가구의 14.02%를 차지하였다.

남편보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우위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78%였다. 남편이 중졸이면서 부인이 대학원졸인 가구는 없었고, 남편이 중졸이고 부인이 대졸인 경우 또한 11가구에 불과함에 따라 이들 집단은 '중졸-고졸이상' 가구집단으로 묶었다. 한편 남

〈표 1〉 부부의 교육수준 분포

		부인의 교육수준				합 계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졸이상	
남 편 의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2,559 (23.86)	313 (2.92)	11 (0.10)	0 (0.00)	2,883 (26.89)
	고 졸	1,485 (13.85)	3,025 (28.21)	151 (1.41)	1 (0.01)	4,662 (43.48)
	대 졸	201 (1.87)	1,503 (14.02)	1,076 (10.03)	37 (0.35)	2,817 (26.27)
	대학원졸 이상	14 (0.13)	100 (0.93)	220 (2.05)	27 (0.25)	361 (3.37)
합 계		4,259 <39.72>	4,941 <46.08>	1,458 <13.60>	65 <0.61>	10,723 (100.0)
Chi-square		6816.495**				
Correlation		0.68054				

* .05수준에서 유의함; ** .01수준에서 유의함.

편이 고졸이면서 부인이 대학원졸인 경우는 1 가구에 불과하여 이 가구 역시 '고졸-대졸이상' 가구 집단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 사용된 부부의 교육수준 유형은 13종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분석대상가구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2〉는 분석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부부의 교육수준별로 나타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 규모는 컸으며, 특히 부부 모두 대학원졸의 교육수준을 가진 가구의 88.9%가 소득 5분위에 속하는 고소득 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남편의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에 비해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았다. 남편이 대학원졸이고 부인이 중졸인 경우 남편의 평균연령이 54.71세로 13개집단 중 가장 높았다. 한편, 남편의 직업유형은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낮은 교육수준의 집단

은 노무직 및 기타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던 반면, 남편이 대졸인 경우는 사무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대학원졸인 경우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부인 역시 대학원졸인 경우는 남편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8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의 자가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대졸이고 부인이 중졸인 집단의 자가보유비율은 7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집단의 평균연령이 51.5세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저학력 집단의 경우는 고학력 집단에 비해 중소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택자금상환여부는 대졸-대졸이거나 또는 대학원졸-대졸 가구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동일한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맞벌이 가능성은 적었다.

2) 가계소득규모

〈표 3〉은 부부의 교육수준별 가계소득규모를 나타내고 부부 각각의 교육수준별 가계소득규모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Anova F-test

〈표 2〉 교육수준별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7,023)

남편-부인교육수준 (조사대상가구수)	전 체		중졸- 중졸	중졸- ≥고졸	고졸- 고졸	대졸- 중졸	대졸- 대졸	고졸- 중졸	대학원졸 -중졸	고졸- ≥대졸	대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대학원졸 -고졸	대학원졸 -대졸	대학원졸 -대학원졸	
	n=10,723	(2,559)	(324)	(1,485)	(3,025)	(152)	(201)	(1,503)	(1,076)	(37)	(14)	(100)	(220)	(27)		
	(n)	(%)	(%)													
가계 소득	평균(만원)	201.9	177.2	159.1	206.4	183.6	199.0	263.2	224.3	237.4	245.8	263.5	268.2	318.1	484.4	
	1분위(<117만)	1,759	16.4	26.5	31.8	13.5	17.5	13.8	12.4	8.03	5.8	5.4	0.0	7.0	2.7	3.7
	2분위(<154만)	2,093	19.5	20.2	27.5	17.7	22.5	19.7	10.0	18.1	17.5	18.9	0.0	8.0	7.3	0.0
	3분위(<193만)	2,248	21.0	19.6	17.6	23.2	25.0	17.1	15.9	20.9	16.6	16.2	21.4	11.0	7.3	7.4
	4분위(<255만)	2,276	21.2	18.0	15.1	23.6	19.8	28.9	24.9	25.9	23.1	24.3	42.9	27.0	19.1	0.0
	5분위(≥255만)	2,347	21.9	15.6	8.0	22.0	15.2	20.4	36.8	26.9	37.0	35.1	35.7	47.0	63.6	88.9
가구 원수	평균	3.75	3.75	3.69	3.91	3.72	3.47	3.71	3.83	3.54	3.22	3.36	4.15	3.87	3.74	
	2인	1,491	13.9	17.0	17.3	12.5	11.8	21.1	22.4	9.0	17.8	37.8	0.0	10.0	8.6	22.2
	3인	2,607	24.3	24.6	25.9	20.2	24.9	28.9	23.4	23.9	28.9	21.6	28.6	12.0	24.1	14.8
	4인	4,536	42.3	34.8	35.8	42.1	47.4	38.2	27.9	49.5	40.3	24.3	14.3	45.0	49.1	33.3
	5인	1,442	13.4	15.2	14.8	17.2	11.8	6.6	18.9	12.1	9.4	13.5	50.0	23.0	10.9	25.9
	6인이상	647	6.0	8.3	6.2	8.0	4.1	5.3	7.5	5.5	3.6	2.7	7.1	10.0	7.3	3.7
남편 연령	평균	41.34	49.46	38.56	45.84	35.83	36.52	51.51	38.26	35.20	35.92	54.71	45.46	40.05	39.56	
	20대	1,201	11.2	1.0	15.1	3.2	21.3	24.3	1.5	12.4	16.5	32.4	7.1	1.0	5.5	14.8
	30대	4,176	38.9	13.9	42.3	26.2	50.9	48.0	14.9	51.8	65.4	40.5	0.0	25.0	53.6	37.0
	40대	2,845	26.5	35.3	27.5	33.5	22.0	16.4	19.9	24.1	13.4	18.9	14.3	45.0	25.0	40.7
	50대	1,878	17.5	35.3	13.0	30.6	5.3	9.2	35.3	9.0	3.3	8.1	42.9	20.0	14.1	7.4
	60대이상	623	5.8	14.5	2.2	6.5	0.5	2.0	28.4	2.7	1.3	0.0	35.7	9.0	1.8	0.0
남편 직업	관리전문직	1,114	10.4	0.4	0.0	4.6	2.4	4.6	38.8	20.6	28.1	37.8	85.7	62.0	70.5	88.9
	준전문직	1,390	13.0	0.9	2.5	8.6	10.6	15.1	15.9	27.9	33.8	18.9	0.0	26.0	17.7	7.4
	사무직	1,610	15.0	1.7	0.9	12.0	16.7	16.4	20.9	30.6	28.4	29.7	7.1	10.0	10.9	0.0
	서비스직	696	6.5	4.3	9.0	6.3	10.1	17.1	1.0	6.0	3.4	8.1	0.0	0.0	0.0	0.0
	노무직/기타	5,913	55.1	92.7	87.7	68.6	60.2	46.7	23.4	14.9	6.2	5.4	7.1	2.0	0.9	3.7
주거 형태	자 가	5,617	52.4	64.0	42.9	63.5	40.1	36.2	78.1	49.8	43.3	51.4	71.4	73.0	62.3	70.4
	전 세	3,673	34.3	21.8	33.6	23.8	41.6	47.4	11.9	43.0	48.8	48.6	28.6	24.0	33.2	29.6
	월 세	1,433	13.3	24.2	13.5	12.7	18.3	16.4	10.0	7.2	7.9	0.0	0.0	3.0	4.5	0.0
거주 지역	서 울	1,400	13.1	9.2	8.6	11.2	11.7	17.8	11.4	15.3	23.2	24.3	21.4	19.0	23.2	14.8
	광역시	4,335	40.4	40.3	38.3	43.0	40.2	42.8	41.3	40.7	38.2	51.4	57.1	26.0	40.0	55.6
	중소도시	4,988	46.5	50.5	53.1	45.8	48.1	39.5	47.3	44.0	38.6	24.3	21.4	55.0	36.8	29.6
주택자금상환 가구	2,143	20.0	15.5	12.7	19.5	20.1	14.5	14.4	24.8	26.5	18.9	14.3	22.0	30.9	11.1	
맞벌이가구	3,972	37.0	44.3	35.8	39.9	32.0	47.4	24.9	30.1	41.2	70.3	7.1	23.0	35.5	63.0	
남성가구주 가구	10,266	95.7	89.9	78.4	99.3	98.2	80.3	100.0	99.9	97.8	75.7	100.0	100.0	100.0	100.0	
미취학자녀존재 가구	1,915	17.9	6.2	20.7	10.8	25.9	20.4	9.0	23.3	25.6	10.8	0.0	13.0	24.1	7.4	
중고생자녀존재 가구	2,905	27.1	39.0	22.8	38.4	18.5	12.5	31.3	22.8	9.8	18.9	21.4	45.0	26.4	44.4	

값을 나타내주고 있다. F-test 결과 가계소득의 규모는 남편의 교육수준별, 부인의 교육수준별로 각각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의 소득수준 또한 높았다. 남편이 중

졸인 경우 평균가계소득은 1,751,802원으로 남편이 대학원졸인 가구의 평균가계소득인 3,146,282원의 절반 정도였다. 반면 부인의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가구의 평균가계소득은 1,917,199원이고 대학원졸 가

〈표 3〉 부부의 교육수준별 가계소득규모

(단위: 원)

		부인 교육수준				전 체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졸이상	
남편 교육 수준	중 졸	1,772,172	1,590,914	-	-	1,751,802
	고 졸	2,063,656	1,835,770	1,990,376	-	1,913,400
	대 졸	2,631,546	2,242,720	2,373,939	2,457,517	2,323,406
	대학원졸	2,634,988	2,682,500	3,181,278	4,843,960	3,146,282
전 체		1,917,199	1,962,044	2,446,510	3,457,539	128,85** / 284,65**

* .05수준에서 유의함: ** .01수준에서 유의함.

구가 3,457,539원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가계소득의 격차가 남편 교육수준에 비해 적었다. 이는 대부분의 가계에서 남편의 소득이 주소득원이 되는 만큼 부인의 교육수준보다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가계소득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중졸, 고졸, 대졸인 집단에서 부인이 중졸일 때 가계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들 집단의 평균연령(51.5세)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모두에서 중졸과 고졸간의 소득격차는 미미한 반면, 고졸과 대졸, 대졸과 대학원졸간의 소득격차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대졸인 경우 가계소득은 2,373,939원이었는데 남편이 대졸이면서 부인만 대학원졸인 경우 가계소득은 2,457,517원으로 미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부인이 대졸이면서 남편이 대학원졸인 경우는 가계소득이 3,181,278원으로 대졸의 부부가구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부 모두 대학원졸인 경우 월

평균소득이 4,843,960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평균 가계소득의 약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부의 교육수준별 가계소비지출 비교

〈표 4〉는 부부의 교육수준별 가계소비지출규모와 부부 각각의 교육수준별 가계소비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Anova F-test 값이 제시되어 있다. F-test 결과 가계소비지출의 규모는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별로 각각 차이가 있었다. 가계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소비지출규모도 커졌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동일한 경우 부인이 중졸인 가구가 고졸인 가구에 비해 소비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중졸인 경우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144,712원으로 고졸인 가구와 거의 유사한 반면, 대학원졸 가구의 2,071,040원과는 커다란 격차를 보였다. 부부 모두가 대학원졸인 경

〈표 4〉 부부의 교육수준별 가계소비지출

(단위: 원)

		부인 교육수준				전 체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졸이상	
남편 교육 수준	중 졸	1,157,598	1,042,934	-	-	1,144,712
	고 졸	1,359,143	1,261,056	1,220,914	-	1,290,991
	대 졸	1,738,702	1,505,244	1,551,039	1,538,788	1,539,835
	대학원졸	1,897,059	1,837,654	2,109,849	2,709,420	2,071,040
전 체		1,257,727	1,333,531	1,594,031	2,068,152	33,93** / 93,41**

* .05수준에서 유의함: ** .01수준에서 유의함.

우 월평균소비지출액은 2,709,420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5>는 부부의 교육수준별 소비성향과 부부 각각의 교육수준별 소비성향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실시한 Anova F-test 값을 보여주고 있다. F-test 결과 가계의 소비성향은 남편의 교육수준별, 부인의 교육수준별로 각각 차이가 있었다. 남편이 대학원졸이고 부인이 중졸인 경우의 평균소비성향이 0.72로 가장 높았고, 부부 모두 대학원졸인 경우의 평균소비성향은 0.56으로 가장 낮았다. <표 6>은 부부의 교육수준별로 가계소비지출규모를 세부지출비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분산분석을 통

하여 각 세부지출비목별로 교육수준에 따라 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전 지출비목에서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중졸가구의 총소비지출 규모는 1,157,598원이었고 가장 고학력집단인 대학원졸-대학원졸가구는 2,709,420원으로 지출규모가 2배를 넘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총소비지출규모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계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5> 부부의 교육수준별 소비성향

		부인 교육수준				전 체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졸이상	
남편 교육 수준	중 졸	0.65	0.66	-	-	0.65
	고 졸	0.66	0.69	0.61	-	0.67
	대 졸	0.66	0.67	0.65	0.63	0.66
	대학원졸	0.72	0.69	0.66	0.56	0.66
전 체		0.66	0.68	0.65	0.60	2.65** 0.42

* .05수준에서 유의함; ** .01수준에서 유의함.

<표 6> 부부의 교육수준별 가계소비지출규모: 분산분석 결과

(단위: 원)

교육수준: 남편-부인	총소비 지출	식료품	외 식	주 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 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 타
중졸-중졸	1,157,598	252,398	84,156	41,531	73,099	41,187	92,876	62,077	97,811	41,628	112,790	258,046
중졸-고졸이상	1,042,934	211,968	86,229	59,519	64,470	46,286	85,472	57,047	81,276	34,231	125,934	190,504
고졸-중졸	1,359,143	265,018	108,454	48,156	72,193	55,061	110,167	63,940	125,709	52,105	154,340	303,998
고졸-고졸	1,261,056	231,011	99,604	45,974	63,921	62,165	104,560	62,172	111,350	58,472	166,632	255,195
고졸-대졸이상	1,220,914	211,672	109,118	52,290	62,925	61,265	107,035	60,377	87,009	73,230	148,715	247,278
대졸-중졸	1,738,702	300,546	160,783	35,548	78,418	81,431	128,156	84,048	141,536	82,576	214,939	430,720
대졸-고졸	1,505,244	260,988	128,783	41,461	65,063	62,476	138,642	68,209	146,347	74,566	218,562	300,146
대졸-대졸	1,551,039	246,777	145,140	50,941	58,983	86,828	158,419	70,031	124,407	99,252	206,955	303,307
대졸-대학원졸	1,538,788	217,358	175,696	19,474	75,862	79,642	113,139	78,418	120,869	105,261	216,802	336,267
대학원졸-중졸	1,897,059	325,074	191,998	94,857	93,424	43,888	191,438	138,248	73,218	55,496	203,005	486,414
대학원졸-고졸	1,837,654	329,820	159,826	54,701	81,796	59,260	171,036	58,522	194,189	82,825	203,501	442,177
대학원졸-대졸	2,109,849	317,916	219,846	83,466	71,515	83,809	181,009	63,042	241,761	150,560	303,057	393,868
대학원졸-대학원졸	2,709,420	328,835	231,296	56,481	75,764	181,832	190,617	56,000	494,908	194,476	473,516	425,696
F-값	25.65**	25.16**	41.84**	2.34**	15.16**	4.02**	24.72**	1.73	37.90**	6.93**	12.02**	2.97**

* .05수준에서 유의함; ** .01수준에서 유의함.

식료품비는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지출규모가 비교적 적게 증가하였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동일한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였는데 이는 앞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보았듯이 부인의 평균연령과 평균교육수준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상대적으로 고령인 이들 가구에 나이 많은 자녀들에 의한 식료품비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외식비 지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외식비지출은 식료품비지출에 비해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지출규모의 차이가 컸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일정할 때 부인의 교육수준이 중졸인 경우 외식비 지출이 많았으며, 고졸인 경우 가장 적은 액수를 나타냈다가 점차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인이 중졸가구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향하는 성향이 높아지면서 외식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거비는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지출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대학원졸가구의 경우 월평균 19,474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중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주거비는 지출비목의 특성상 월세와 같은 열등재와 주택설비수리 등의 선택재가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함께 묶었을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명확한 특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광열·수도비는 전반적으로 6-7만원대의 지출규모를 나타냈으며, 대졸-대졸가구가 월평균 58,983원의 가장 적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동일할 때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 비목의 지출규모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적고, 여타 사회활동도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대졸-대졸가구

의 경우 월평균 86,828원을 지출하며, 대학원졸-대졸가구는 83,809원, 대학원졸-대학원졸가구는 181,832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이 대졸인 가구의 지출이 여타집단과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피복·신발비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부부가 대학원졸인 경우 월평균 190,617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중졸부부 가구의 92,876원의 2배가 넘는 규모였다.

교육비지출은 부부의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지출비목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높은 교육수준이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사교육비 조달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부부가 대학원인 경우 월평균 교육비지출액은 494,908원으로 부부 모두 중졸인 가구의 10만원이하의 지출액에 비해 거의 5배의 차이를 보였다. 남편이 대졸이하인 경우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교육비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남편이 대학원졸인 경우는 부인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비지출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오락비는 부부가 대졸이상인 경우 지출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목은 남편의 교육수준 뿐만 아니라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동일할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양오락비 지출규모는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부인이 대학원졸인 경우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175,97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통신비 역시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규모가 커졌다. 중졸의 부부가구가 이 지출비목에 대한 지출규모가 가장 작았는데 월평균 112,790원이었으며, 부부 모두 대학원졸인 경우 473,516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용비, 경조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다양한 특성의 지출비목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보건의료비의 경우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지출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부부의 교육수준과 기타가계특성이 가계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표 2〉에서 교육수준별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졸-대학원졸, 대학원졸-중졸, 대학원졸-대학원졸 집단의 경우 분석대상의 수가 각기 37가구, 14가구, 27가구에 불과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셀 간에 평균치를 비교하여야 하는 회귀분석 과정의 기본가정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회귀분석에 사용된 교육수준 집단은 10집단(중졸-중졸, 중졸-고졸이상, 고졸-중졸, 고졸-고졸, 고졸-대졸이상, 대졸-중졸, 대졸-고졸, 대졸-대졸이상, 대학원졸-고졸, 대학원졸-대졸이상)이며, 이 중 소비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중졸-중졸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사용하였다.

〈표 7〉은 부부의 교육수준과 기타가계특성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사용된 설명변수에 의한 각 세부비목별 설명력은 28.46%(외식비)에서 2.15%(교양오락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부부의 교육수준 변수

부부의 교육수준은 가계소득 및 여타 가계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전 지출비목에 있어 지출규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고졸, 대졸-대졸과 같이 부부가 동일한 교육수준인 경우 소비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소비지출규모에 근거할 때 남편이 대학원졸이고 부인이 대졸인 경우 부부가 중졸인 가구에 비해 평균 219,373원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가계소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계소비지출규모에 대해 유의한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즉 고졸-대졸이상가구와 중졸-고졸이상가구의 경우, 총소비지출규모에서 중졸-중졸가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고졸-고졸, 고졸-대졸, 대졸-대졸가구 및 대학원

졸-대졸가구는 중졸-중졸가구와 비교할 때 소비지출비목 전반에 걸쳐 유사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졸-대졸가구의 경우 중졸가구와 가장 큰 폭의 소비지출규모의 차이를 보였다. 외식비지출은 부부가 같이 고졸이거나 대졸인 경우 중졸부부에 비해 지출이 많았으며, 대학원졸-대졸가구는 외식비지출이 가장 많은 집단으로 중졸-중졸가구에 비해 월평균 40,645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은 부인의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인이 대졸인 경우 중졸가구에 비해 주거비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열·수도비지출은 대졸부부가 중졸부부가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여러 사회활동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피복·신발비의 경우 여타 가계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중졸부부에 비해 고졸 및 대졸부부, 대졸-고졸부부의 지출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피복·신발비 지출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보다 다양함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남편이 대학원졸이면서 부인이 대졸인 경우 피복·신발비 지출에 있어 중졸부부가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들 최고 교육수준집단은 외형적 생활양식의 차별화보다는 교육 또는 교양오락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면적 생활양식의 차이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비지출은 소득 및 여타 가계특성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남편-부인의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가구에 비해 고졸가구는 월평균 18,423원을 더 지출하였으며, 특히 남편이 대졸 및 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학원졸-대졸가구의 경우 중졸부부가구에 비해 월평균 86,388원을 더 지출하였다. 이는 고학력자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통통신비는 중졸-중졸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고

〈표 7〉 부부의 교육수준과 기타기특성이 기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회귀분석결과와 회귀계수

변수	총소비 지출	식료품	외식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피부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
(남편-부인의 교육수준)												
중졸-고졸이상	24,985	-4,001	17,254**	15,689	-1,441	-1,856	6,725	-810	-285	-7,217	19,887	-18,960
고졸-중졸	34,659	1,782	3,931	6,207	-1,476	1,429	248	-3,006	6,023	-4,815	14,878	9,458
고졸-고졸	114,055**	7,100*	11,363**	7,485	-851	4,858	12,914*	143	18,423**	607	37,916**	14,095
고졸-대졸이상	47,743	-854	9,858	15,186	609	-121	5,182	-1,953	10,635	13,924	8,888	-13,611
대졸-중졸	52,382	4,307	5,194	-16,736	-223	7,646	-12,075	5,362	28,939**	1,485	42,973	-14,431
대졸-고졸	119,411**	10,868*	5,252	8,941	-2,637	-5,106	21,184**	-1,574	28,627**	-305	55,569**	-1,409
대졸-대졸이상	161,941**	11,912*	13,784**	20,048**	-3,818*	12,159	36,477**	1,539	22,985**	21,074	31,063	-5,282
대학원졸-고졸	109,889	26,055*	6,920	16,237	2,087	-14,057	21,082	-20,441	20,032	-1,985	-11,293	65,201
대학원졸-대졸이상	219,373*	22,050*	40,645**	44,110**	-1,755	-14,409	12,814	-19,319*	86,388**	53,371**	63,463*	-67,948
(기타변수)												
상수항	229,892*	-9,496	-32,386**	113,995**	32,587**	75,812**	25,174	32,730**	-182,948**	-9,240	-59,000	242,665**
가계소득	0,486**	0,034**	0,038**	0,010**	0,006**	0,029**	0,066**	0,017**	0,031**	0,025**	0,086**	0,145**
가계소득제곱	5,198E-9*	2,873E-10	2,191E-9**	3,206E-10	-3,574E-10**	1,615E-9**	-2,304E-9**	-2,760E-10	-1,923E-9**	1,997E-10	-5,329E-9**	1,077E-8**
가구원수	23,934	36,757**	10,973*	677	3,980*	-20,066*	-24,594**	-3,010	56,902**	16,107	38,130*	-91,933**
가구원수제곱	-1,629**	-901	-422	366	1,687	3,071**	776	-5,333**	-1,913	-4,073*	8,568*	82,442**
남편연령: 30대	-119,023**	25,548**	-8,265*	4,343	-1,533	-15,721*	-5,074	-1,157	33,443**	-3,007**	-38,089**	-74,169*
40대	-41,368	56,839**	1,484	4,983	3,217*	-33,599**	544	8,359	60,705**	-32,072**	-37,658*	-28,738
50대	18,842	69,009**	13,268**	6,377	12,114**	-36,852**	8,949	8,727	347	-31,683**	-28,738	-2,667
60대 이상	-82,560	74,752**	11,423	18,183*	4,743*	-57,345**	-15,376*	6,581	-2,330	-35,577*	-55,919**	-31,695
남편직업: 전문직	54,540	7,790	29,100**	-6,868	4,457**	-8,361	9,025	-546	19,297**	13,145	61,983**	-74,486*
준전문직	50,894	-5,373	29,152**	3,913	-1,024	-7,761	8,189	-3,632	15,789**	13,118	25,538	-27,014
사무직	30,590	-2,322	23,626**	1,002	-1,594	-1,857	9,162*	5,558	7,486*	26,117**	-2,327	-34,263
서비스직	-7,416	-6,322	12,999**	8,446	-899	-18,676	14,380*	4,626	-3,196	5,142	11,939	-35,854
자가	-26,016	12,171**	-7,025	-96,588**	8,281**	11,866	8,108	7,396*	12,140**	10,962	-6,221	12,874
전세	-98,187**	-3,015	37,781**	-123,354**	1,981	13,126	-434	5,801	-2,372	513	-5,953	23,866
거주지역: 서울시	23,557	22,152**	20,439**	3,327	-19,745**	-10,246	-1,656	1,367	36,165**	-4,762	-4,946	-35,881
광역시	8,197	7,548**	20,439**	-713	-4,868**	-6,278	8,844**	-886	10,300**	-7,114	-5,622	-13,452
주택자금상환여부	-34,574	-4,773	-6,610*	-367	-16,581**	-3,126	-10,937**	100	13,179**	-6,681	311	911
맞벌이여부	-209,056**	-30,754**	-4,754*	-10,850**	-1,668*	-18,131**	-13,089**	-17,396**	-1,370	-10,283	2,994	-103,755**
남성가구주	49,858	27,601**	11,132*	-5,190	6,617**	-8,520	-2,346	-250	1,068	10,297	5,408	4,039
미취학자녀존재	15,975	1,756	-12,616**	1,864	-2,371*	-1,254	-1,463	-1,401	62,072**	-1,839	-16,469	-12,023
증고생자녀존재	127,069**	11,166**	-8,049**	5,236*	929	3,949	7,465**	-7,829**	100,674**	-2,323	3,804	12,077
R ² -값	0,2452	0,2821	0,2847	0,0790	0,1453	0,0404	0,1660	0,0275	0,4440	0,0215	0,0378	0,1138
F-값(검증결과)	115,771**	140,057**	141,877**	30,585**	60,582**	15,022**	70,963**	10,086**	284,649**	7,816**	14,008**	45,753**

* .05수준에서 유의함; ** .01수준에서 유의함.

줄-고졸가구, 대졸-고졸가구, 대학원졸-대졸가구 등이 상대적으로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교육수준집단인 대학원졸-대졸가구의 경우 중졸부부가구에 비해 월평균 63,465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가사용품은 가계소득 등 여타 가계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졸부부가구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교육수준집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다양한 양식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는 가구집기·가사용품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득과 남편의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와 기타소비지출에 대한 지출 또한 부부의 교육수준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타가계특성변수

가계소비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가계소득이었다. 총소비지출은 가계소득과 가계소득제곱 변수 모두 양의 부호는 가지면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의 증가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식, 가구집기·가사용품, 기타소비지출의 규모도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열·수도, 피복·신발, 교육, 교통통신비의 규모는 가계소득의 회귀계수는 양(+), 가계소득제곱의 회귀계수는 음(-)을 나타냄으로써 가계소득증가와 함께 소비지출은 증가하되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주거, 보건의료, 교양오락 등은 가계소득제곱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가계소득의 회귀계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간의 관계가 선형관계임을 시사한다.

가구원수는 총소비지출규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비목에 따라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식료품, 교육, 교통통신비 등이 가구원수와 소비지출규모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비목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와는 양(+),의 관계가, 가구원수 제곱과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지출이 증가하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복·신발과 기타소비지출비는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지출규모가 적어지되 그 감소율은 점차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과 광열·수도비는 가구원수와 정(+)적 선형관계, 가구집기·가사용품은 부(-)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가구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남편이 20대인 가구에 비해 30대인 가구의 총소비지출이 적었다. 식료품비는 남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규모가 커지며, 가구집기·가사용품, 교통통신, 교양오락비는 20대가구에 비해 연령이 높은 가구가 소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광열·수도비의 지출이 20대가구에 비해 높은 반면, 피복·신발비 지출은 적었다. 교육비지출의 경우 30, 40대가구의 지출이 20대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지출비목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외식비, 피복·신발, 교육비지출의 경우 남편직업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여부 역시 가계소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세가구는 월세가구에 비해 총소비지출이 적었으며, 특히 주거비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거주지의 경우 일부의 식량 자급자족이 기대되는 중소도시에 비해 서울시와 광역시거주 가구들은 식료품 및 외식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역시 이들 대도시의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광열·수도비는 중소도시가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상환중인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외식, 피복·신발비등 선택재적 지출비목에 대한 지출규모가 적었다. 맞벌이가구의 총소비지출은 전업주부가구에 비해 20여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비, 교양오락, 교통통신비를 제외한 전 지출비목에서 소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여성가구주에 비해 식비(식료품비와 외식비)와 광열·수도비의 지출이 많았다. 중고생자녀가 가구에 존재하는 경우 월평균 127,099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외식비와 보건의료비 지출은 적었다. 반면 미취학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는 외식비 지출이 다른가구에 비해 적었으나, 교육비지출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층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조사한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근로자 부부가구인 10,723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 동일한 교육수준인 가구가 62.36%로 가장 많았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우위인 경우가 32.85%였다. 부부가 함께 고졸인 경우가 28.2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둘째, 부부가 고학력일수록 가계소득 수준이 높았고, 가구주의 직업 또한 관리전문직의 비율이 높았다. 남편과 부인간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많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구주연령이 높았다.

셋째, 부부 모두 대학원졸인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은 4,843,960원으로 중졸부부가계의 1,772,172원의 2.7배에 이르는 수치를 나타냈다.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소비지출규모는 커지나 교육수준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폭은 가계소득의 증가폭보다는 적었다. 가계소비지출이 가장 큰 집단은 부부 모두 대학원졸인 경우로 월평균 2,709,420원이었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이 중졸, 고졸, 대졸인 경우 각 경우에 있어 부인이 중졸인 가계의 총소비지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이 대학원졸인 경우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소비지출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부부의 교육수준은 가계소득 및 여타 가계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모든 지출비목에 있어서 지출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가 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소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소비지출

규모에 근거할 때 남편이 대학원졸이고 부인이 대졸인 경우 부부모두가 중졸인 가구에 비해 평균 219,373원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부인의 교육수준이 가계소비지출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비해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가계소비지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즉 부부의 교육수준이 고졸-대졸이상, 중졸-고졸이상인 가구의 경우 총소비지출규모에 있어 중졸-중졸가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모두 가계소비지출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해 주며, 나아가 부부의 교육수준은 각각 분리된 형태가 아닌 혼합된 형태로 가계소비지출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남편의 교육수준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두 변수 중 한 변수의 생략은 가계소비지출 행동의 세부의 특징적 사항들을 밝히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지출연구의 경우 교육수준 변수의 선정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분산분석의 결과에서 부부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가계(남편은 대학원졸, 부인은 대졸이상)는 외식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출규모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가계소득 및 다른 주요 가계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위의 영역과 관련된 산업체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표적 고객(target client)을 선정하여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셋째, 가계소득이나 다른 주요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식료품비, 외식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의 영역에서 부부 교육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특히 회귀분석을 통해 부부가 동일하게 고졸-고졸인 경우와 대졸-대졸인

경우에는 증줄-증줄인 경우보다 이러한 효과가 한층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부의 교육수준이 가계소비지출의 규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가장 큰 세부비목은 교육비(86,388원), 교통통신비(63,465원), 교양오락비(53,371원)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비목들은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지출비목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부부가계를 위한 재교육 정책이나 공공 프로그램 개발, 또한 앞서 언급한 마케팅 전략개발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계소비지출 연구에 있어서 가계의 인적자본 변수로써 부부 모두의 교육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그 효과를 파악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부부 교육수준만으로 가계의 인적자본 효과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계의 인적자본과 소비지출에 관한 후속연구에서는 부부의 교육수준과 직업종류, 경험등을 함께 결합시킨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인적자본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 중 부부가 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질 때 소비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재입증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계소득과 가계의 인적자본이 소비지출의 규모와 형태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강기연 (1989). 주부의 자아실현성과 부부간의 사결정 유형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2) 길미령 (1990). 부부의 공동의사 결정시 내재된 갈등과 갈등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3) 김기욱 (1988). 교육이 소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6(1), 123-135.
- 4) 김기욱 · 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2.
- 5) 김성희 · 문숙재(1989). 자아실현성과 공동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63-178.
- 6) 김영숙(1996). 도시가계의 경조소비지출구조분석. 소비자학연구, 7(2), 1-22.
- 7) 문숙재 · 정순희(1995). 소비지출 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6(2), 53-65.
- 8) 성영애 & 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간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9) 이윤금 · 양세정(1999). 식생활비 지출규모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 분석 -도시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8(1), 63-79.
- 10) 정영숙(1992). 가계의 소비지출패턴-대구 · 경북 지역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2), 1-14.
- 11) 정영숙(1996).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2.
- 12) 정용선(1993). 소득향상과 식료품비의 변화: 도시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1975-1990). 소비자학연구, 4(1), 59-73.
- 13) 통계청(1997).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
- 14) Abdel-Ghany M. & Foster A.C. (1982). Impact of income and wife's education on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21-28.
- 15) Abdel-Ghany M. & Schrimpter, R.(1978). Food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education of the homemak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4), 283-292.
- 16) Abdel-Ghany M. & Schwenk, F.(1993).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299-315.
- 17) Becker, G.S.(1975). *Human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8) Hafstrom J.L. & Dunsing, M.M. (1972). Satisfaction and education: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consumption patter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 4-12.
- 19) Horton, S. & Hafstrom, J.(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nsumption of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3, 392-303.
- 20) Jang, Y.G.L.(1995). *Human capital-enhancing expenditures: A comparison of female-headed and married-couple household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USA.
- 21) Michael, R.T.(1973). Education in nonmarket produ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306-327.
- 22) Michael, R.T.(1975). Education and consumption, in F.T. Juster(Ed.), *Education, Income, and Human Behavior*(235-252), New York: McGraw-Hill.